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경기지역 성남-부천-화성 컨소시엄 '세 친구 어깨동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경기지역 성남-부천-화성 컨소시엄 '세 친구 어깨동무'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2012 프로젝트북)**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편집인       하동근  
기획 총괄    고성영  
기획 진행    박지훈, 유상진  
디자인/인쇄  필그래픽스  
발행일       2012. 12

© 성남문화재단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012 프로젝트북)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012 프로젝트북)



## CONTENTS

### I. 사업 개요

- |         |    |
|---------|----|
| 1. 개요   | 08 |
| 2. 추진배경 | 09 |

### II. 사업 추진 과정

- |                                  |    |
|----------------------------------|----|
| 1. 2012 사랑방문화클럽, 문화다양성 확산의 장을 열다 | 16 |
| 2.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2012 활동계획을 수립하다   | 17 |
| 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 19 |
| 공모 발표와 '사랑방한마당-다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선정  |    |

### III. 사업 내용

- |                            |    |
|----------------------------|----|
| 1.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 | 22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2 |
| -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 29 |

- |                      |    |
|----------------------|----|
| - 2012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료식 | 33 |
| - 기타                 | 34 |
| 2.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지원 활동  | 37 |

### IV. 사업 성과 및 영향

- |                  |    |
|------------------|----|
| 1. 특징            | 40 |
| 2.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 43 |
| 3. 성과            | 45 |
| 4. 아쉬운 점         | 49 |
| 5. 영향            | 50 |

### V. 참여자 후기

- |                 |    |
|-----------------|----|
| 1. 이주민 여성 참여자   | 52 |
| 2. 선주민 참여자      | 64 |
| 3. 이주민 지원단체 참여자 | 72 |
| 4. 자원봉사 참여자     | 76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012 프로젝트북)



## 사업 개요



1. 개요
2. 추진배경

## 사랑방 한마당

## 다문화 예술 아카데미

### 1. 개요

- 사업명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 기 간 : 2012년 5월~12월
- 장 소 : 성남시 일원(성남아트센터, 중원청소년수련관, 중앙공원야외공연장 등)
- 주 최 : 성남문화재단
- 주 관 : 사랑방문화클럽,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 목 적

- 이주민 가정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향수 증진
- 문화를 통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네트워크 구축
- 생활예술 영역의 문화다양성 확산 모델 마련
- 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력 네트워크 모델 마련

#### ○ 참여주체

- 이주민 가정 여성 및 자녀 84명(성인 46명, 아동 38명)
- 성남시 생활예술 네트워크(사랑방문화클럽) 7개 회원클럽 소속 회원 20여명
- 이주민 지원기관(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및 자원봉사단(대진고 학생 등) 50여명
-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

#### ○ 사업내용

- 선주민 문화동호회(사랑방문화클럽)의 이주민 여성 및 자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5월~11월)
  - 미술, 리본/풍선, 한지공예, 합창 등 4개 강좌
- 생활예술 네트워크 활동(5월~12월)
  - 선주민 문화동호회(사랑방문화클럽)와의 상시적 연계활동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행사 참여
  -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참가(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 경기 컨소시엄 교류협력 프로그램(10월13일)
  - 경기도 문화다양성 대학 '무지개보부상 일일장터'(부천문화재단 및 00은 대학)

### 2. 추진배경

#### 1)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4번째로 많은 이주민 거주 지역

- 2011년 현재 성남시 외국인 주민 수는 24,988명으로 조사
  - 경기도 전체에서 4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
    - 안산시(50,864명) > 수원시(30,567명) > 화성시(30,340명) > 성남시(24,988명)
-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남시 위탁기관), 성남이주민센터,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등이 다양한 이주민 지원사업을 추진 중

#### 2) 성남시는 생활예술 활동네트워크 구축 모범지역

-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성남시 생활예술 네트워크구축과 활성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육성과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오
  - 2006년 조사를 통해 약 1,100여개의 시민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민이 자발적 시민문화예술 동호회활동을 통해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모델을 개발



※ 춤 : '참'의 옛말, '품질이 우수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 : '한'의 옛말, '큰' '같은' 뜻을 더하는 접두사, '우리' 라는 의미로 사용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 성남시를 소재로 활동하는 자생적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및 교류 네트워크

- '사랑방'은 우리 전통의 소통과 교류의 문예공론장
- 근대화, 도시화에 따라 우리 전통의 공동체 생활양식 상실
- 우리 전통을 계승한 현대 도시의 새로운 '사랑방'을 창조하고자 '사랑방문화클럽'을 추진



사랑방 문화클럽 club sarangbang

- 개개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장'을 형상화
- 동그란 원처럼 모두 하나 되어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자는 염원을 담음
- 오방색 중 '백, 적, 흑'을 사용하여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함을 상징

### • 사랑방문화클럽활동

-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은 자치, 의결기구인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와 성남문화재단의 협의를 통해 실행



- 매년 1월 초, 워크숍을 통해 5~6개 클럽으로 구성된 팀을 결성 한 후 1년 활동 계획을 팀별로 수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1년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성남문화재단은 이를 지원





- 4월~10월까지 팀별 활동 실행.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시장,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서 소외층과 일반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을 실행

사업명	연 도	팀구성수(참여클럽수)	실행 프로그램수	장소
문화 공헌 프로 젝트	2008	7(67)	46회	도서관, 지역아동센터병원, 공원,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학교, 주민센터, 광장 등
	2009	13(102)	45회	
	2010	13(105)	40회	
	2011	12(105)	34회	

연 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클럽수	문화공헌활동 참여클럽수	참여비율(%)
2011	162개 클럽	105개 클럽	64.8
2012	180개 클럽	137개 클럽	76.1

- 매년 10월 초, 성남아트센터, 중앙공원야외공연장, 율동공원 야외무대 등 성남시 일원에서 사랑방문화 클럽네트워크 참여 클럽이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문화나눔 장터 등)



3)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2012년 3월 2일 성남문화재단&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협약 체결
  - 사랑방문화클럽의 청소년수련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프로그램 ‘아트 매칭 펀(Arts Matching Fun)’ 협력
    - 청소년수련관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연습 및 발표를 위한 공간을 제공
    - 6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6개 교육 프로그램을 사랑방문화 클럽이 담당





순번	예술교육부문	사랑방문화클럽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분
1	모듬북	풍물굿패 두렁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루터기’	저소득
2	사진	디토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징검다리’	장애
3	한지공예	오방지회	서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피투게더’	장애
4	연극	극단 어우러	정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푸른나무’	저소득
5	판소리	성남 판소리	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Knock’	저소득
6	합창	원음합창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다미’	저소득



## 사업 추진 과정



1. 2012 사랑방문화클럽, 문화다양성 확산의 장을 열다
2.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2012 활동계획을 수립하다
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공모 발표와  
'사랑방한마당-다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선정

2012년 사랑방문화클럽,  
문화다양성 확산의 장을 열다! (2012.2.4~5)

2007년부터 일상 속 생활예술의 장을 펼쳐온 사랑방문화클럽은 올 2012년 처음으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예술활동을 펼쳤다.

2012년 2월 4일~5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 된 '2012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sup>1)</sup>에서 결혼 이주민 여성 가정을 지원하는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와 사랑방문화클럽들이 만나 스스로가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팀을 꾸려 2012년 한 해 활동을 계획하였다.



1)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 클럽들이 매년 초, 한자리에 모여 한 해 활동을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정하는 자리이다. 또한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할 5~6 개 클럽이 1개 팀을 꾸리는 첫 자리이기도 하다.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1년 계획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클럽 스스로 조직한 팀은 3월까지 팀별 활동 계획서를 성남문화재단에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2012년 활동계획을 수립하다. (2012.3.29)

2월 초,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프로젝트<sup>2)</sup>를 실행하기 위한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을 마치고 조직된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은 2월~3월 동안 여러 차례 클럽들이 만나고 의논하여 총 13개 클럽이 참여하고 5월~10월까지 교육,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프로젝트'는 한 해 동안 클럽들이 팀을 구성하여 3~4회 활동계획을 팀 스스로가 기획하여 일반시민 및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실행하는 자발적 시민문화예술동호회들의 생활예술활동 네트워크 활동이다.

〈2012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활동 계획〉

구분	팀명	사업명	일시	장소	참여클럽
1	새터랑	새터랑음악회	6.30(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존(분당색소폰클럽, 미멜만돌린양상블, 윤, 김영자민속예술단, K댄스아카데미, S라인댄스, 늘빛)
			9.15(토)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2	오케스트라연합	오케스트라 듀오콘서트	6.30(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존(파구스필하모니orch, 늘푸른챔버orch, 파구스중창단) -신규(푸른초장브라스밴드, 계원예중orch.)
3	네이버카페 '분당엄마따라잡기' 교육문화동아리	상반기 분당엄마따라잡기 문화동아리 발표	7.22(일)	성남아트센터	-신규(극단 '아인', 재즈댄스팀, 리틀축구단, 일본어 동아리, 중국어동아리, 아동미술, 성인수채화팀)
			7.22(일)	성남아트센터 로비(전시)	
4	다문화 예술아카데미 (통합형)	다문화 체험 교육 (노래, 미술, 공예)	5~11월	중원청소년수련관	-기존(분당해드로잉, 도화지애, 하늘빛아뜰리에, 한지마을, 오방지화, 분당요들클럽, 포엠송, 두리안, 다문화댄스, 하모니무용단, 줌인세상,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 성남탄천문화학) 신규(필리핀공연, 다문화가족봉사)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5~10월	성남시 일원	
		사랑방클럽축제	10월8일 ~ 14일	성남아트센터	
5	국악한마당	국악한마당	9.21(금)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존(하모니무용단, 구미무용단, 이매우리춤, 소리사랑회, 다문화민속춤) -신규(타악그룹 '울', 가야금병창, 어린이사물)
6	성남사랑	성남시민을 위한 가족음악회 "나의 살던 고향은"	9.8(토) 16:00~18:00	나들이공원(판교)	-기존(마제스틱청소년orch.) -신규(소리씨앗, 작은물소리, 페르마타, 포토스케치)

구분	팀명	사업명	일시	장소	참여클럽
7	자연과 사람과 하나되는 우리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낭만	8.29(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존(분당요들클럽, 함께여는청소년학교,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 분당재즈앙상블, 씨밀레콰이어, 호도애포크댄스클럽, 뽀니역사, 한국다문화예술아카데미) -신규(분당우쿨레레동호회, 디토)
		가슴으로 느끼는 자연	9.22(토)	남한산성 야외음악당	
8	문학과 역사의 하모니	문학과 역사와 음악의 어울림	6.23(토)	성남문화원	-기존(포엠송, 디토, 한국다문화가정, 한지마을, 만들린과 통기타앙상블, 성남탄천문학회, 뽀니역사)
9	통기타연합	시민과함께하는 포크페스티벌	6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존(고은소리, 여섯줄사랑, 포엠송, 기타홀릭, 현여울, 마틴팬더깍스) 신규(조율, 소리사랑, 통기타클럽, 어깨동무)
			8월 4째주	희망대공원	
			9월 3째주	모란역	
10	오감만족	소통과 나눔의 행복축제 "우리가 주인이다" - 아리랑을 주제로	8.25(토) 14:00~21:00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기존(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가악풍류회, 보네르플룻 오케스트라, 우리소리연구회, 에듀플룻오케스트라, 분당뮤젠필하모니, 재미있는시낭송, 놀미랑, 다문화 '두리안') -신규(세경국악단, 다카포합창단, 해피라이브)
11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1	6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기존(에다움, 한지뜨락, 수미화, 도화지애) -신규(수선화, 행복한컬트)
		아름다운 동행2	9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12	사랑방 지하철예술무대	모란역5일장 사랑방음악회	5.19(토) 15:00	모란역	-기존(아니마토만들린, 분당요들클럽, 하이피아브, 씨밀레콰이어, 하모니색소폰, 늘푸른색소폰, 포엠송, 늘푸른챔버orch, 성남목관앙상블, K댄스아카데미) -신규(쥬블리오카리나, 어깨동무)
		서현역 사랑방예술무대	9.15(토) 15:00	서현역	
13	한여름밤 금요문화 한마당	한여름밤 금요문화한마당	6.29(금) 19:30 7.27(금) 19:30 8.24(금) 19:30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한마당 심사 후 참여하지 않은 클럽으로 구성
14	청소년문화한마당 "생생놀이터"	청소년문화한마당 "생생놀이터"	5.15(화)	수정청소년수련관	-기존(함께여는청소년학교) -신규(뮤지컬댄스 '어울림', 합청소리, 통통소리, 단대우리 '댄스', 해범 '밴드', 레인보우 '만들린')
			8.9(목)	양상블시어터	
			10.17(수)	거리공연	
15	프라임밴드	프라임밴드	9.15(토) 17:00~19:30	아탑역광장	-기존(스튜디오창, 자율학습, 사우스캐슬, 루씨르, 레드, 젠틀브리즈)
			7.21(토) 17:00~19:30	아탑역광장	
16	Com-together	Com-together	9.8(토)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기존(라푸노스, 스튜디오창, 늘푸른챔버orch, 아모르플룻오케스트라)
			10.20(토)	시민회관 소극장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공모 발표(2012.4.5)와  
‘사랑방한마당-다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선정(2012.4.30)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에서 나아가 문화적 주체로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16개 시·도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추진을 4월 5일 발표하였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공모발표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공모지원이 2012년 추진하는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과 연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장인 박봉덕 분당해드로잉 대표와 정천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지원을 결정하였다.(2012. 4. 6)

경기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2012. 4. 9)에서, 마침 부천문화재단이 경기지역 컨소시엄을 제안하였다.(2012. 4. 6)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흔쾌히 동의하였고, 화성시문화재단의 참여를 권유하여 성남문화재단-부천문화재단-화성시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성남-부천-화성 3개시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지원을 결정하였다.(2012. 4. 10)

이에 따라, 3개 문화재단은 서로 긴밀히 논의하여 각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리며, 3개시가 협력하는 경기지역 컨소시엄 ‘세 친구 어깨동무’라는 이름으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에 지원하였다.(2012. 4. 23). 그리고 4월 30일 경기지역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구 분		사 업 명
성남문화재단		• 사랑방한마당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화성문화재단		• 카메라를 든 아시아    • 동화책으로 말해요    • 함께살아요(연극)    • 꿈꾸는 무지개
부천 문화 재단	○○은대학	• 취미공동체만들기 / ○○은 다양성 대학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시지부)	• 무지개친구    • 징검다리
	공공미술삼거리 (믹스라이스)	• 함께 쏟아지는 빛
	부천이주노동자 복지센터	• 향기나는어울림아트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 주민문화동아리운영    • 부천라운드    • 음식공감    • 달맞이 잔치
		• 소통하는 다문화칼럼집 발간(밀레니엄 윈도우)
	기 타	• 우리동네 문화덕쇼
		• 문화꾸러미 사업



사업 내용



1.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 2012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료식
  - 기타

2.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지원 활동

사랑방  
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5월~11월)

사랑방문화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중원청소년수련관 강의실 2곳에서 매주 합창, 미술, 한지공예, 리본/풍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분당요들클럽이 합창, 분당해드로잉과 하늘빛아뜰리에 클럽이 미술, 오방지화 클럽이 한지공예, 그리고 한지마을 클럽이 리본/풍선 강좌를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다문화예술아카데미의 활동 기록은 사진클럽인 줌인세상이 담당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엄마반 1개, 자녀반 1개를 동시에 진행했다.

결혼 이주민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는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가 이주민 자조모임을 발굴하여 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문화재단에 연결시켜 주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하고 선주민의 참여를 보다 높이기 위해 다문화자원봉사단을 조직,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캠프 및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주민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2년 3월 2일 청소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사랑방문화클럽의 참여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관 공간 사용 등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중원청소년수련관 강의실 2곳을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였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는 결혼 이주민 여성 46명과 자녀 38명이 참여하여 총 35명이 수료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5명의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다수의 여러 회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도 담당 실무자 2명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주민 여성들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단 5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 목	일 시	장 소	내 용
마음의 문, 활짝 열어요! 다함께 노래를	5월~11월	중원청소년수련관	다문화엄마와 노래 불러요! 우리 가요, 동요, 합창, 요들송!
아름다운 색채예술! 미술로 마음을 표현해요	5월~11월	중원청소년수련관	미술의 세계로! 다문화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것! 한지공예, 리본 · 풍성아트	5월~11월	중원청소년수련관	한지공예, 리본공예, 풍선아트 등 엄마와 함께 만들어요!!
사랑방클럽축제	10월 8일~14일	성남아트센터	공연(다문화, 한국무용, 기타합주, 합창), 전시(다문화 전통의상, 사진, 시문학), 동영상, 프로그램활동 카페운영
다문화자원봉사단	5월~10월	청소년수련관	다문화가족, 자녀와 멘토 결연 문화예술활동 멘토 및 아카데미활동

참여클럽 소개



분당요들클럽

매주 월요일 저녁 '중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오면 멋진 회원들과 흥겨운 요들을 함께 할 수 있음. 수업은 요들의 기초발성과 호흡법으로 시작해서 요들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음. 가사들이 목가적인 전원을 그리고 있어 영혼까지 밝고 맑아짐



분당해드로잉

사람의 몸짓이 보여주는 휴머니티를 드로잉하면서 서로의 삶 이야기를 소통하며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술문화발전에 동참하는 인체크로키 그림 동아리





### 한지마을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수강생들과 수료생들의 모임. 한국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현대산업 사회에 기여하고자 우리나라 전통공예와 새로운 현대공예를 조화롭게 접목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 10년째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하늘빛아뜰리에

2007년에 창립하여 주민자치센터, 중앙공원, 서울대병원, 성남아트센터 등 전시봉사활동을 하며 2011년과 2012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 청소년 미술수업과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미술 수업활동을 하였음



### 오방지회

2009년 12월 24일 성남여성문화회관에서 한지공예를 5개월간 배운 마지막 날 친목도모 및 한지공예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자 제안하여 모임이 시작. 오방지회는 오방색이라는 우리 전통의 색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지공예를 잘 계승, 발전 시키고자하여 오방지회라는 이름을 짓게 됨



### 줌인세상

성남청년문화단체인 '성남청년대학' 디카동아리를 통해 함께 함. 이후 디카사진동호회 줌인세상으로 발전하였고 사진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한 청년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임. 취미생활을 넘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활동을 하고 있음

### 미술 프로그램 : 분당해드로잉, 하늘빛아뜰리에





합창 프로그램 : 분당요들클럽



한지공예 프로그램 : 오방지회





리본/풍선 프로그램 : 한지마을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10월 8일~14일)

매년 가을에 열리는 '사랑방클럽축제'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예술적 기량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방문화클럽의 화합과 한 해 성과를 총 망라하는 발표의 장이다. 사랑방클럽축제 개최를 위해 사랑방문화클럽들은 축제 TF팀을 만들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올 2012년 제 6회 사랑방클럽축제는 예전보다 더 뜻 깊은 축제였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 이주민 문화활동이 처음 함께 한 축제였기 때문이다. 베트남 자조모임 '두리안' 클럽, 몽골 자조모임 '하탄' 그리고 다문화예술아카데미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어머니합창단 '나누리' 팀이, 34개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10월 13일 저녁 7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돌아온 삼천갑자 동방삭, 함께 부르는 탄천아리랑'이란 주제로 연합 공연을 가졌다.

또한, 다문화예술아카데미의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여성과 자녀들이 그린 그림과 한지공예 작품들을 성남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사랑방문화클럽들과 함께 공동 발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아울러 10월 13일 오페라하우스 특별 공연에 앞서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문화예술아카데미사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 각종 이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베트남, 몽골 자조모임의 전통 공연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성남-부천-화성 3개시 협력사업으로 '무지개보부상 일일 장터'를 개최하여 부천시의 이주민 문화활동을 성남시에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사랑방  
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  
아카데미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오페라하우스 특별공연  
(2012. 10. 13)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사랑방클럽展  
(2012. 10. 8~10. 14)



제6회 사랑방클럽축제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2012. 10. 13)





부천문화재단 협력 프로그램 '무지개 보부상 일일 장터'(2012. 10. 13)



사랑방  
문화클럽과  
함께하는  
다문화예술  
아카데미

2012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수료식 (2012. 11. 24)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활동은 11월 24일 오후 3시 중원 청소년수련관 강의실에서 수료식을 갖고 7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동안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46명의 결혼 이주민 여성 중 3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참여한 4명이 모범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수료증과 상장은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양희정 부위원장이 수여하였다.

수료식에는 그동안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에 참여한 이주민 여성 및 자녀들을 비롯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자원봉사자,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관계자,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사업담당자들이 참여해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동안 함께 한 활동들을 축하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하며 올 한 해 활동을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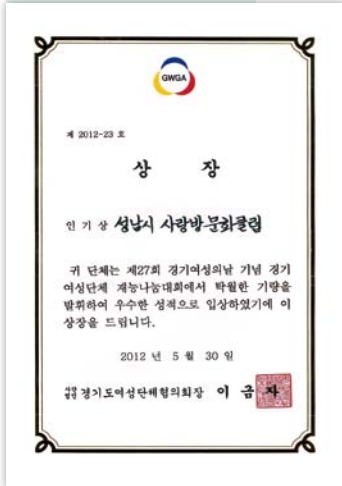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과  
함께하는  
이주민  
자조모임 활동

기타

올 2012년 한 해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활동 외 베트남, 몽골, 중국 여성 자조모임들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여러 클럽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먼저 베트남 여성 자조모임 '두리안'은 민요클럽인 '청실홍실', 한국전통무용클럽인 '하모니 무용단'과 함께 5월 30일 제27회 경기여성의 날 기념 '경기 여성단체 재능나눔대회'에 성남시대표로 나아가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팀별로 실행하는 '2012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프로젝트의 일환인 국악한마당팀의 '국악한마당축제' (2012. 9. 22.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베트남, 몽골, 중국 이주민 여성 자조모임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성남시민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기량을 마음껏 선사하였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의 미술, 공예클럽들은 다문화예술아카데미활동을 계기로 클럽 간 연계활동을 더욱 넓게 펼쳐나갔다. 6월 11일~30일까지 '카페 드 노피 갤러리', 7월 2일~8일까지 성남시청 홍보관 갤러리 '공감'에서 각각 전시회를 가졌다.





## 참여클럽 소개



### 하모니 무용단

춤으로 문화공헌을 하고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매주 일요일 성남문화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음. 각종 경연대회 및 다문화 민속춤과 합동공연, 사랑방문화클럽의 행사 등 성남시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연을 펼치고 있음



### 두리안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먹는 맛있는 과일 이름으로 고향 베트남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성남에서 다문화가족대표로 각종 경연대회 및 다문화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음



### 다문화어머니 합창단, 나누리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제결혼이주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머니합창단 '나누리' 팀은 성남에 거주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적응과 다문화사회의 소통을 위해 사랑방문화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회원들로 구성되었음

## 한국 다문화가족 연구소 지원 활동

###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sup>3)</sup> 지원 활동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을 구성, 이주민 여성과 자녀의 문화활동을 지원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프로그램 실행 시, 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대학생봉사단
- 경찰대학 플라리스봉사단
- 대진고등학교 나눔이봉사단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봉사단
- 성북중학교 다사랑봉사단
- 분당파랑새봉사단(한솔고, 늘푸른고)
- 샛별중, 수내중, 기타

또한,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민 가정의 한국문화체험 등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하는 이주민 가정 여성과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3)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해줌.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다문화가족 연구학술활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21.kr](http://www.hi21.kr)) 및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블로그(<http://blog.daum.net/brights2>) 참조.







## 사업 성과 및 영향



1. 특징
2.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3. 성과
4. 아쉬운 점
5. 영향

## 특징

### 이주민 개인의 보편적 문화욕구 해소 노력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주민 가정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공적 지원 필요
- 이주민 각 개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문화권 실현
  - 현재 국내 이주민 대상 문화다양성 지원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한국문화 체험’과 ‘선주민의 이주민 문화 체험’의 ‘쌍방향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주요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이주민 문화를 국가 또는 민족 단위로 범주화하여 구분하는 것은 이주민 ‘개인’의 문화적 욕구 및 활동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이주민 각 ‘개인’을 ‘보편적 문화욕구’를 가진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여겨짐. 따라서 이주민 각 개인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실행 프로그램 기획을 ‘한국문화’ 또는 ‘이주민 문화’ 중심이 아닌 ‘미술(수채)’ ‘공예(리본/풍선)’ 등 비교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주민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음
- 이주민과 선주민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 아울러, 기존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의 목적인 ‘이주민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해 한지공예 및 한국노래 배우기 프로그램도 설치함. 또한, ‘선주민의 이주민문화 이해’를 위해 사랑방클럽축제 기간 중 ‘이주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설치함

### 문화를 통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네트워크 구축

- 기존 많은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실행 기간 중에만 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활동이 일어나고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공중전화 현상’<sup>4)</sup>이 발생
- 지속적인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이주민 풀뿌리 자조모임과 선주민 문화동호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 성남시에는 자생적 시민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활발히 활동 중. 이를 활용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함

4) 공중전화가 동전을 투입해야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 예산이 투입될 때만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예산 투입이 종료되면 사업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음.

### 생활예술 영역에서의 문화다양성 확산 모델링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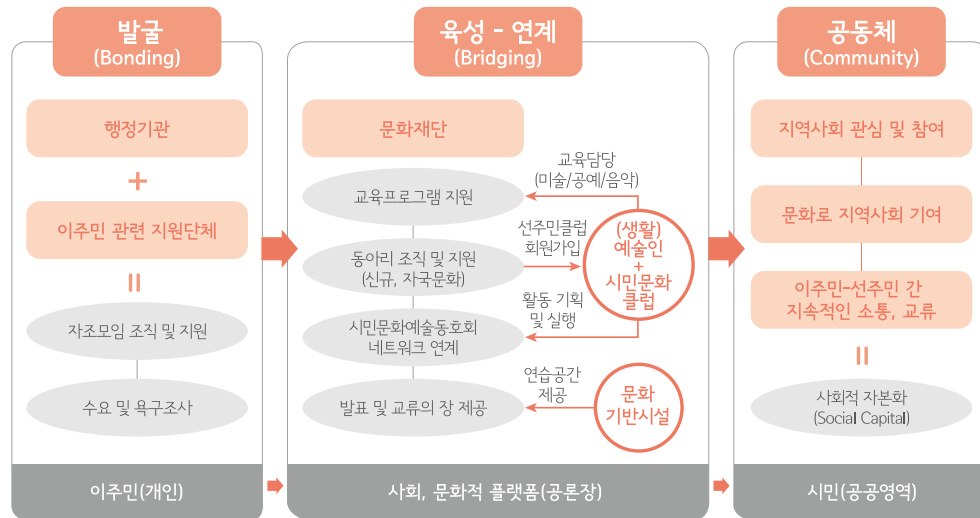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생활예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임
- 시민이 주체적으로 일상 속 생활예술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공동체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 추세임
- 현재 생활예술 논의는 선주민 중심. 생활예술 영역이 이주민 문화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생활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성과 콘텐츠 확대가 필요
  - 이주민 문화를 ‘이방인의 문화’ 또는 ‘타자의 문화’가 아닌 한국사회의 ‘시민문화’로 인식하는 인식제고가 필요함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함

- 기존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은 이주민을 '수혜자' 또는 '소비자'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자신의 문화적 기량을 선보이고, 문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자' 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생활예술의 국내 선도 모델인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이를 시험해 보고자 함

- 2007년부터 실행한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의 경우 그동안 이주민 문화활동 연계활동이 없었음. 올 2012년 처음으로 이주민 문화활동 참여가 이루어짐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과 이주민 문화활동의 연계, 발전 모델〉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모델 마련 노력

○공공기관은 예산, 행정, 공간을 지원/민간 이주민 지원단체는 이주민 자조모임을 발굴, 지원, 연계/자생적 생활예술 단체 및 네트워크는 문화예술교육과 공동참여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함

##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 사랑방문화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이주민 여성 및 자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이주민 여성의 문화참여활동을 위해서는 자녀 동반이 필수. 따라서 엄마 반, 자녀반 2개반을 동시에 운영하여 이주민 결혼 여성의 부담을 덜어줌

○이주민 자조모임의 사랑방클럽축제 공연 및 전시 참여 지원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경기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이주민 자조모임과 행사 공동 참여 지원

○이주민과 선주민 참여자 온라인 교류 모임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카페 운영 (<http://cafe.daum.net/DaSaRangg>)

###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이주민 자조모임 발굴 및 지원

○이주민 자조모임과 사랑방문화클럽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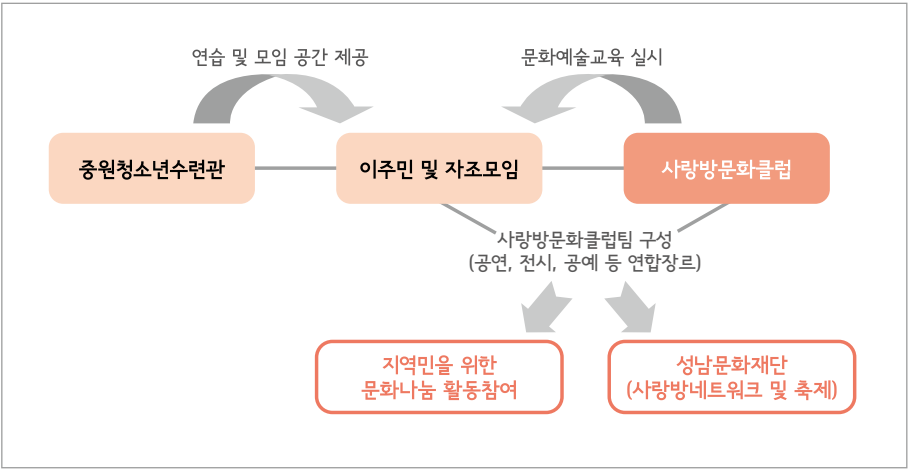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 이주민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돌봄을 실시하여 이주민 결혼 여성의 부담을 덜어줌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중원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모임을 위한 공간 2곳 제공 및 물품 보관

성남문화재단

- 사업 기획, 예산 및 행정지원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전시관 등 시설 지원
- 중원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공간 사용 신청 및 조정
- 이주민 자조모임 지원단체, 사랑방문화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 중원청소년수련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의견 조율 및 요구사항 해결(매개자 역할 수행:문화기획부 사랑방문화클럽사업 담당자 3명이 지원)
- 재단이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사업수행단체의 결과 및 정산 보고 등 행정 부담을 덜어줌



〈성남문화재단의 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력 네트워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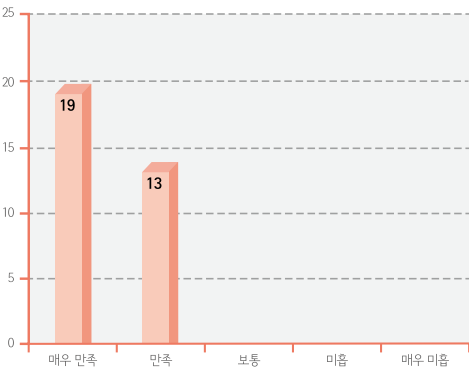
성과

이주민 참여자 만족도 조사

1)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Q 참여하신 프로그램(활동, 교육, 축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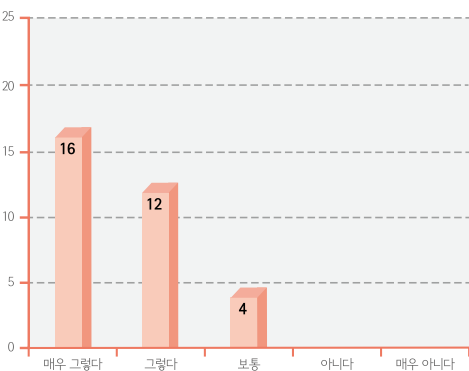
총 32명(30대 16명, 40대 1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9명(59.4%)이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13명(40.6%)이 '만족'한다고 대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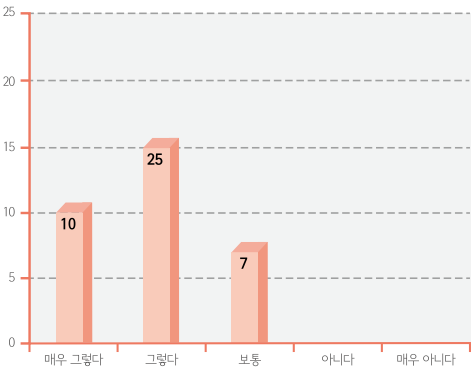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Q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나요?

전체 응답자 중 16명(50.0%)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으며, '그렇다'가 12명(37.5%), '보통'이라고 답한 참여자는 4명(12.5%)으로 각각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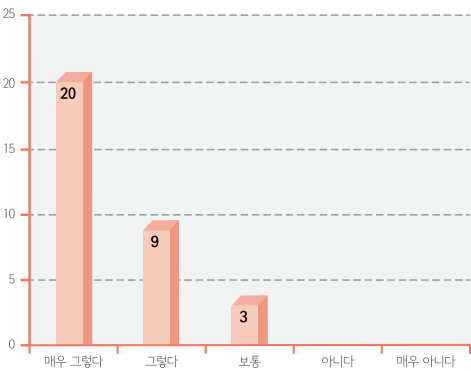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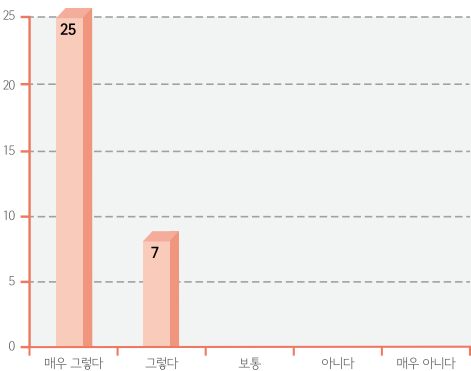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타인에 대한 관심 제고

**Q** 프로그램 참여 후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 동료, 지인에 대해 관심이 생겼나요?  
프로그램 참여자 25명(78.1%)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문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하였으며, 7명(21.9%)은 '보통'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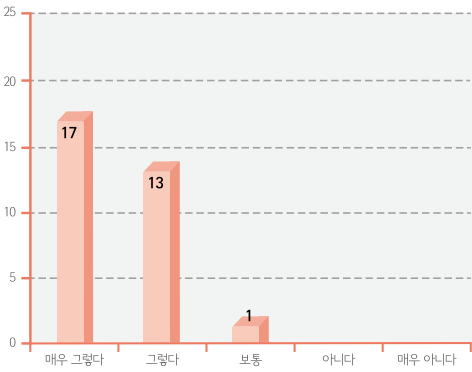
4) 프로그램 참여 후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변화

**Q** 프로그램 참여 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29명(90.6%)은 프로그램 참여 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5) 프로그램 참여 분위기

**Q**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나요?  
설문에 응한 32명(100%) 모두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6) 향후 참여의지

**Q**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가요?  
전체 응답자 중 30명(93.8%)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

수혜자 수

○이주민 가정 여성 및 자녀 84명 참가(성인 46명, 자녀 38명)

출신국적	참여자수	성별
러시아	4명	여
말레시아	1명	여
몽골	5명	여
베트남	7명	여
일본	1명	여
태국	3명	여
필리핀	3명	여
중국	22명	여
총계	46명	

## ○수료자

- 총 35명 수료
- 모범상 1명(말레이시아), 우수상 3명(중국 2명, 일본 1명)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측면에서의 성과

### ○자생적 선주민 중심 생활예술 활동네트워크에 문화다양성 영역 활동을 처음 시도

-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선주민 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운영
- 2012년 무지개다리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 추진 이래 최초로 이주민 문화활동이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 ○이주민 문화활동이 생활예술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주민과 연대, 교류할 수 있는 활동 모델을 시험해 봄

- 시민으로써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시험해 보고 그 가능성을 확인

## 아쉬운 점

### 1) 이주민이 동호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역량이 부족

- 직장, 잦은 이사,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이주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동호회 활동에 장애
- 6개월의 교육을 통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만큼의 기량향상 기간이 부족
- 동호회의 타 회원과 수준 차이로 인해 동호회 활동이 저해, 이러한 문제로 원래 계획과 달리 이주민이 선주민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2) 타 이주민 지원 기관 프로그램의 중복, 과잉 공급으로 인해 대상자가 중복되고, 이주민이 선별, 선택하는 문제

- 사업 참여 이주민이 타 기관 프로그램에도 참여
- 이주민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본 사업 참여가 미진한 경우 발생

### 3) 재료비 등 실비에 대한 사업 참여자들의 부담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움

- 미술, 한지, 리본, 풍선 프로그램은 재료비가 발생하는데 선주민 참여 동호회 또는 이주민에게는 부담이 됨
-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가 만만치 않음
- 다음 예산 확보 시 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현상
- 그러나, 합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랑방클럽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적으로 추진



## 영향

### 생활예술계와 문화다양성활동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 생활예술 네트워크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이주민 문화활동 첫 참여
  - 이주민 자조모임(베트남 '두리안')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 첫 가입
  - 이주민 지원센터인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가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 가입
- 경기 컨소시엄을 통해 부천문화재단과 첫 재단 간 연계사업 실행
  - 생활예술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과 부천문화재단이 첫 교류프로그램 실행(사랑방클럽축제 기간 중 '무지개 보부상 일일장터' 개최)

### 문화다양성 사업역량 강화

- 성남문화재단 내 설립 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실행
  - 문화다양성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 2013년 사랑방문화클럽 추진 사업의 중요 추진사업으로 인식
  - 외부 재원이 없을 경우, 성남문화재단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형성
- 이주민 자조모임 지원 기관인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방문화클럽과의 연계, 협력 관계 구축
  - 2013년에도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 표명
  - 선주민 문화자원봉사자 발굴과 확보가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생활예술 영역의 문화다양성 확산 모델의 상 제시
  - 이주민과 선주민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활동은 동호회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봄
  - 생활예술활동 네트워크인 사랑방문화클럽의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사례가 하나의 모범사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러 시사점을 주었다고 판단됨



### 참여자 후기



1. 이주민 여성 참여자
2. 선주민 참여자
3. 이주민 지원단체 참여자
4. 자원봉사 참여자

## 이주민 여성 참여자<sup>5)</sup>

### 무제

#### 림 슈 내

(말레이시아, 여, 45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모범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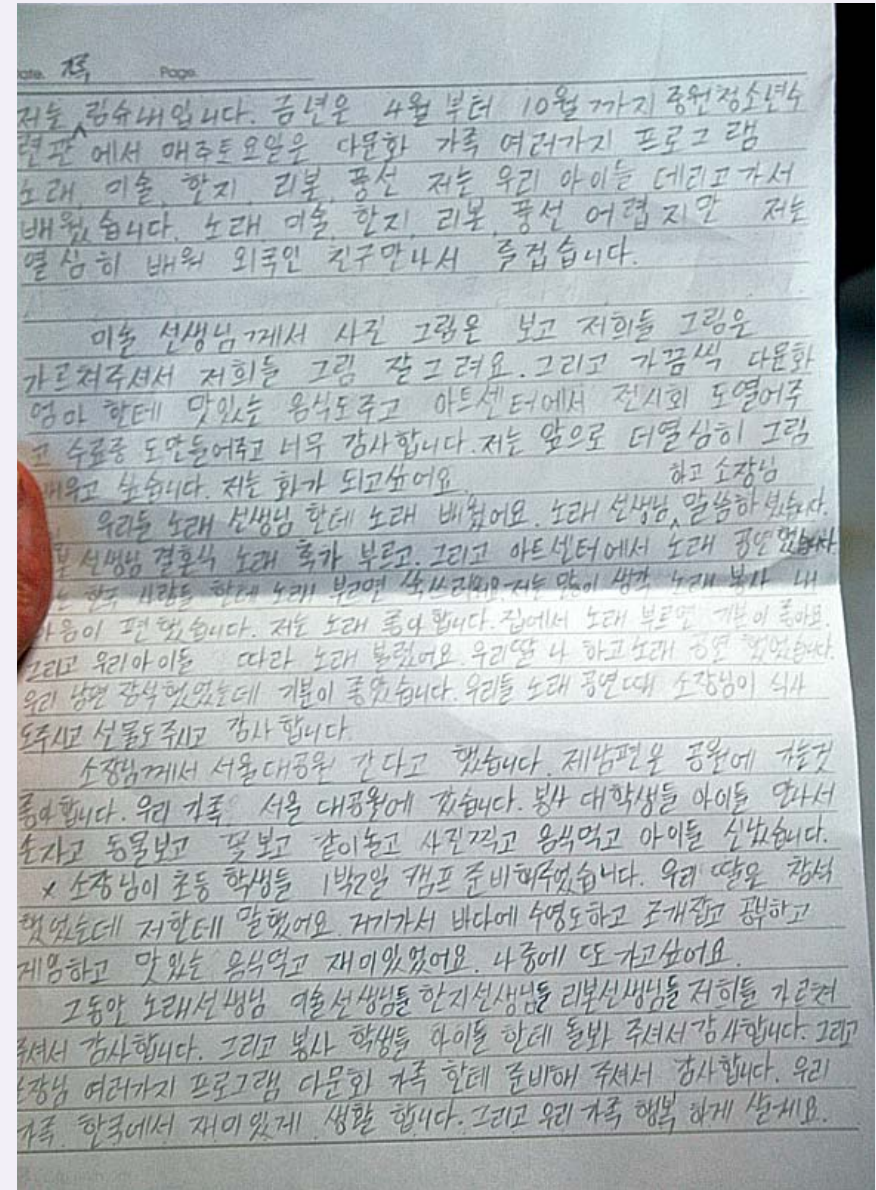


저는 림슈내입니다. 금년은 5월부터 11월까지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매주 토요일을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노래, 미술, 한지, 리본, 풍선,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배웠습니다. 노래, 미술, 한지, 리본, 풍선 어렵지만 저는 열심히 배워 외국인 친구 만나서 즐겁습니다. 미술 선생님께서 사진, 그림을 보고 저희들 그림은 가르쳐주셔서 저희들 그림 잘 그려요. 그리고 가끔씩 다문화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도 열어주고 수료증도 만들어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림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화가 되고 싶어요.

우리들 노래 선생님한테 노래 배웠어요. 노래 선생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리본 선생님 결혼식 노래 축하 부르고,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노래 공연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면 쑥스러워요. 저는 많이 생각 노래 봉사 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노래 좋아합니다. 집에서 노래 부르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따라 노래 불렀어요. 우리딸 나하고 노래 공연 했었습니다. 우리 남편 참석했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들 노래 공연 때 소장님이 식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서울대공원 간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공원에 가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봉사 대학생 아이들 만나서 손자고 동물보고 꽃보고 같이 놀고 사진찍고 음식먹고 아이들 신났습니다. 소장님이 초등학생들 1박2일 캠프 준비해주었습니다. 우리 딸은 참석했었는데 저한테 말했어요. 거기 가서 바다에 수영도 하고 조개잡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맛있는 음식먹고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또 가고 싶어요. 그동안 노래선생님 미술선생님 한지선생님 리본선생님들 저희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사학생들 아이들한테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한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한국에서 재미있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요.



림 슈 내  
참가 체험담  
원본

5) 이주민 참여자 수기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DaSaRangg/>)에서 볼 수 있음. 본 수기는 이주민 참여자가 직접 쓴 것으로 오타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부정확하나, 이에 대한 교정 없이 그대로 수록했음.

## 제가 다문화 예술 아카데미에 만나는 것 올해 4월 이였습니다

### 다오다 요코

(일본, 여, 46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제가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 마나는것 올해4월이 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르고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노래, 미술, 리본공예, 한지공예, 풍선아트를 배웠습니다. 아이도 토요일을 즐겁게 기다리고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지금까지 한국노래를 잘 모르고있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선생님께서 여러가지 가르쳐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래방에 가도 같은 노래만 하고있었는데 여러가지 부를 수 있어서 많이 기쁩니다. 모르는 노래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배우고 싶습니다.

미술은 학생때 그리고 있었는데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때가 없어서 잘 할수있을까 많이 걱정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못해도 작품을 완성했을때는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림을 전시했을때는 정말로 믿을수 없었습니다. 리본공예, 한지공예, 풍선아트도 잘 못했지만 하나하나 완성했을때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5월에는 서울대공원에 대학생과 갔을 때는 아이도 많이 기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노래공연은 많이 긴장했는데 여러번 연습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잘 해서 달성감을 느껴서 많이 기뻐서 시원했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배우고 싶습니다. 소장님,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30년전의 꿈이 이루어지다

서 단 (중국, 여, 37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여보시요~ 김치, 잘자, 안 추워, 밥먹어, 사랑해~"

고향에서 걸어온 친정엄마의 전화다. 8년전 제가 첫아이출산 할 때 어머니가 겨울 한 달간 한국에 머무시면서 배웠던 몇 마디 한국어를 통화할 때마다 총 쏘는 것처럼 한꺼번에 사용하신다. 지금은 아마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럴 법도 하다.

"妈, 天气冷了吧? (엄마,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我现在穿毛衣毛裤呢, 过两天得穿棉袄了... (지금은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내일모레는 솜바지를 입어야 될 것 같애. 한국은 아직도 따뜻하냐, 한국의 겨울은 진짜 살기 좋더라 ㅎㅎ)"

"엄마, 나 요즘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예술을 공부해요."

"뭐라고? 너는 애기 셋을 데리고 무슨 예술을 한다고?"

"엄마는! 또 하지 말라고 그소리지. 애기들은 자원봉사단학생들이 다 돌봐주고요. 나는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리본도 만들고 풍선아트도 하고 한지공예도 해요. 어렸을 때 엄마 못하게 하는 것들 전 애기들을 데리고 다 한다!!"

30년전 제가 그림, 서예, 십자수 등 엄청 좋아했었다. 신폴마량(神笔马良)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주인공마량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리는 것마다 다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 나도 신폴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엄마가 밥벌이 안 된다며 공부나 하라고 한 번도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주시지 않았다. 『어린이왕자』를 읽고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예술을 배운다. 30년전의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너무 감사하고 잠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다.

첫 시간에 제가 고구마 꽃을 그려봤다. 선생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잘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붓을 잡는 방법부터 서툴고, 물을 어느 정도 섞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월요일 애기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제가 서점에 가서 수채화기법에 관한 책을 뒤집으면서 열심히 읽은 기억도 난다.



그동안 가족행사, 아이들입원, 모임 등 핑계로 많이는 참석 못했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노래선생님(신성봉선생님), 리본아트선생님, 그림선생님(박봉덕팀장님, 이인숙선생님, 베트남인물화를 가르쳐주신 언니같은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아니 감사하는 말이 어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랴. 다사랑 선생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쪼개셔서 가르쳐주시고 저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그림 한점이라도 보여주시려고 이리 저리 뛰시고 한국사회를 좀 더 적응하라고 언니처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차도 태워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간식도 꼼꼼히 챙겨주셨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은 못한다고 야단치지도 않고, 안 왔다고 부담을 주시지도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시간과 장소에 따뜻한 미소와 친절, 겸손,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고 감사했다. 빠른 한국 사회 속의 여유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방클럽축제가 끝나면 한동안 못 뵈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으셨으니까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든다. 다문화가족들도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선생님들처럼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기대된다(다문화가족들의 마음은 다 저와 같으리라)

## 끝나지 않은 노래

서 단 (중국, 여, 37세)

2012년 10월 13일 뜻깊은 역사의 순간-다문화어머니의 합창, 평생 처음 이렇게 큰 무대에 관객이 아닌 주인공으로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문화어머니들과 작은 물소리 합창단의 '몽계구름과 사랑으

로'가 1800석의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리허설할 때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사가 잘 생각 안 나고 박자가 자꾸 틀렸습니다. 무대 위에 몇분을 서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연습하고 서로 맞추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작은 물소리합창단어린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놓이긴 하지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랑방클럽축제의 막이 내렸지만 노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문화어머니들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몽계구름입니다. 우리 딸레미도 소꿉놀이하면서 몽계구름을 흥얼거리더라고요.



이하늘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무대에 서 있었기에 의지가 되었구,  
나 혼자가 아닌 선생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튼튼했구,  
나 혼자가 아닌 당신이 있기에 지금도 노래를 부른다...

예술아카데미선생님들,  
그리고 작은 물소리합창단 어린이들,  
우리 다문화어머니 동지들... 고생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 수료식을 마치며

서 단 (중국, 여, 37세)



벌써 수료하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다문화아카데미에서 다문화어머니들이 노래, 미술, 한지, 리본, 풍선공예 등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기회가 있다해도 아이들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큰 무대도 서보고 미술 작품전시도 하고 리본과 한지를 자기손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과 거리가 먼 저희들이 진짜로 문화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집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재능기부와 다문화연구소소장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봉사자들의 헌신,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후원해주신 사랑방클럽관련된 분들... 감사하다는 말을 어찌 저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랴....

비록 다른 복지관의 행사로 수료식에 많이들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마음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내년에 빨리 개강하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우리집 식탁

서 단 (중국, 여, 37세)



내 손으로 만든  
차통과 티슈케이스입니다.  
차통은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참 이쁘고  
실용적이지요?



## 결혼축가

리본공예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결혼식날 (9월9일)  
저희 7명이 다문화가정대표(?)로 축하를 불렀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구요,  
행복하세요~

서 단 (중국, 여. 37세)



## 리본공예

제가 처음 만든 리본공예작품입니다.  
다른 분들도 손재주가 아주 좋군요^^  
여섯살인 딸래미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었어요.  
어떤 게 제가 만들었을까요? ㅎㅎ

서 단 (중국, 여. 37세)



## 다문화 예술아카데미에 참가하며 느낀 점

**박정희** (중국, 여, 42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자)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가장 뜻 깊고 즐거웠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에 색다른 여유와 활력을 준 다문화아카데미가 있어 한해가 더 보람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천석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 선생님들과 함께 주말에 아이들에게 신나는 여름 캠프도 진행 되었고, 우리 엄마들에게 한지공예, 미술, 노래를 접하게 하여 고국에서 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하고 나누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어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해보고 그려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 고국의 전통복장을 입고 다문화어머니합창단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르고, 양미경의 레인보우 평화방송에 인터뷰에도 참여해서 색다른 체험과 추억이 남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문화친구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마음에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활력소가 되어 준 다문화아카데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들과 매주 부담 없이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친정나들이 가는 기분이 되기도 했지요.

저희도 늘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에 노력하려고 해요.~~

부족한 우리를 여러모로 많이 사랑해주고 관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문화여서 위축되었던 모든 친구들이 자존과 인격을 찾고 함께 즐기고 배워가는 다문화아카데미^^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정말 보람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나영** (중국, 여, 37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수료생)

성남청소년 수령관에 하는 다문화 예술아카데미를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랑 저의 공주님 리안이 항상 기대했던 시간이었어요. 병소에는 밥을 잘 안 먹던 리아이는 토요일에 모든지를 다 잘해요, 놀러 가니까 엄마한테 잘 하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요.^

미술 노래 한지공예 봉선 아트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됐고 아이한테 예술 계몽의 도움이 도 많이 됐었어요.

노래 시간에 선생님이 가끔 엄마들이 잘 떨어지지 않은 아이들 위해 동요 노래를 쳐주시고 아이들 그 익숙한 멜로디를 들자 금세 자리의 일어나고 율동을 시작했어요. 아직 노래 잘하려는 스키를 더 배워야 했지만 분의기를 활기찬었어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에서 시집은 외국인 엄마들도 같이 노래 불으면서 서로 생소한 감이 없어지게 됐어요. 참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그랬는지 리안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집에서도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요. 여기 격주에 미술 전문가 박봉덕 선생님이랑 여러 봉사자 선생님들이 엄마 팀이랑 아이 팀이 나눠서 계열이 그림 그리기도 지도해 주셔서 아이들위해 물건 놀이등 여러가지 미술활동도 마련 해 주셨어요.

날씨 더워서 선생님들은 땀이 옷을 다 젖어도 불구하고 계속 지도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와 아이들의 그린 그림을 다 액자를 끼워 주신 후에 전시회도 마련해주셨어요. 이건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대단한 격려와 힘을 됐어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덕분에 그 동안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냈어요.

## 선주민 참여자

### 2012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추억하며....

**박 봉 덕** (사랑방문화클럽 분당헤드로잉, 다문화예술아카데미팀장 : 미술 프로그램)

2012년 다문화 가정과의 만남은 참 특별하였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첫 수업을 시작하던 날. 새로운 삶의 세계와의 만남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내가 가진 나눔의 생각들을 예술아카데미란 형식으로 미술, 한지공예, 노래부르기, 리본/풍선을 이용한 창작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인의 문화를 전달하며 진실되고 순수한 보람을 느꼈다.

그려보고 싶었던 그림의 세계를 만나 드로잉과 색채를 통하여 반짝이는 재능과 감성을 보여주던 말레이시아에서 온 림슈내, 기모노를 만들던 섬세한 솜씨로 차분이 히로시마섬을 그려냈던 다오다 요코,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러시아 하바로스크에서 온 안나는 역시 그림의 손맛이 남달랐다.

대학시절 선교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인연하여 한국이된 침착하고 섬세한 태국에서 온 판아는 귀여운 딸아이를 업고와서 근사한 태국의 풍경을 그렸고, 임신 중에도 열심히 태교를 위해 예술아카데미를 나오던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온 미가-막마르수렐은 몽골의 풍경을 그리며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를 멋지게, 유목민의 후예답게 말

타고 있는 징기스칸의 모습을 그리며 몽골의 모습을 한껏 뽐내었다.

우리의 이웃, 중국에서 온 서단은 어학을 전공한 학도답게 능숙한 한국어로 인사나누며, 그림도 열심히 그리며, 좌중을 화기애애하게 리드하며 아카데미를 활발하게 도와주었다. 참 귀엽고도 영리한 딸 리안과 함께 나오는 나영씨는 중국의 천단공원과 용춤을 그리며 중국의 풍경을 스케치하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과도 그림 전시회 감상을 같이하며 친근한 교류를 나누었다.

항상 소중한 남편과 온 가족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필리핀의 레티샤는 아카데미에 다문화가정의 다정하고도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우즈벱의 칸, 몽골 대학생 예쁜 딸과 함께 온 몽골의 지메드마, 중국의 김만복, 양도령, 박정희....이 밖에 참여한 여러 다문화가정의 회원들....

올해 다문화예술아카데미와 함께한 여러 회원들의 성실하고도 즐거운 이야기들은 많은 추억의 줄거리를 가지고 꿈을 키우며 선생님들과 즐겁고 희망찬 시간의 인연들을 키워나갔다.

한국이 지향하는, 성남의 시민이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한 행사로서 사랑방문화클럽의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봉사는 다문화가정으로 한국인이 되어가는 다사랑회 회원들의 삶에 문화적 감성과 즐거움으로...온화하고도 여유로운 한국인의 삶에 가까워지는 풍요를 더하여 주었다고 자부한다.

사람의 삶에는 훈훈한 인정의 장이 꼭 필요하며 또 서로 나누어야 행복하지 않는가~!

선생님들은 이들과 같이하며 재능봉사를 통한 삶의 기쁜 나눔을 교류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여러분들은 한국땅에서의 친절함을 선생님들을 통하여 한층 더 돈독한 인정을 익혔으리라 생각하며....

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며 11월 수료식 끝까지 같이해 준 여러 선생님들, 주말을 다문화가정과 같이 하시는 다문화가족연구소의 정천석 소장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사랑방문화클럽과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의 여러 담당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 2013년에는 지도선생님들과 다문화가정 회원들과 같이하는 '에코-아트전' 세 번째 전시를 꿈꾸며 그간에 배움과 가름침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우리들 모두 아름다운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 리본 풍선 수업을 마치며

**최민영** (사랑방문화클럽 한지마을 : 리본/풍선 프로그램)

한지마을로 클럽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우선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여러 가지 배움들이 이제는 나눔을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다문화가정 분들과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일반적인 수업 방식으로 컨셉들을 잡고 오히려 더 재료와 강의내용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수업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지요.

다문화엄마들의 열정과 끼는 정말 대단들 하더라고요. 첫 수업으로 리본수업 때 리본치수재기, 재단, 실로 꼬매기 등등. 뽀글이 머리고무줄을 만들었는데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곳에서 왔지만 소품 만들기로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재료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 리본종류를 여러 가지 가져간 보람이 있게 하나의 샘플만 보여주고 가르쳐주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각기 응용을 하여 기존샘플에 새로움을 더해 또 다른 작품을 탄생시키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배움을 받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것이 리본공예의 특성이라 다소 지루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또는 지인 분들에게 나에게 선물한다며 정성껏 만들어 직접 머리에 꽂고 아이들이

머리에 꽂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진정한 배움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본수업과 함께 풍선수업도 병행해서 하였는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긴 매직풍선이 동물이나 도구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신기하게 보는 모습이 어린이 마냥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도 풍선이란 매혹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일반풍선 수업 때도 풍선들이 엮여서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하고 모르는 것들은 물어봄으로써 머릿속에 새겨 집에서 또 다시 해보겠다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덩치가 좀 큰 작품들이라 버스타고 가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느라 고생했다는 여담을 이야기 하고 들으면서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제 결혼식 때 노래교실을 맡아주신 신성봉선생님과 몇 분의 다문화엄마들이 축하를 불러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례사가 없는 결혼식이라 다소 밋밋할 수 있었던 것을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색다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 분들과 친척분들도 기억에 남은 결혼식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지마을 클럽회원 분들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클럽 분들 덕에 즐거운 시간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었음을 머리 숙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 너무도 소중했던 시간여행

**조진순** (사랑방문화클럽, 하늘빛아뜰리에 : 미술 프로그램)

어느날 문득 내가 생산적인 일을 마치고 늘어갈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을 한적이 있었다.

여러가지의 나의 장점들을 생각해 보아도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생각들... 그즈음 우리집 근처에는(홍대근처) 많은 미술학원에서 저녁이면 많은 그림들을 내어놓았었다.

"아, 그래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선생님을 찾았지만 도무지 처음 접해보는 분야라 자신이 없던 나에게 선생님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될수있다 용기를 주셨다.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무작정 시작했다.

너무도 열심히 하고 너무도 재미있었기에 밤을 새워가며 그림에 몰입했고 성취감 또한 무엇보다도 비길수없었다.

여러 가지 테크닉을 시험해서 그림에 접목을 해보았고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 공모전에도 출품 입상도 여러번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친구 동생들도 만났고 "하늘빛 아뜰리에"라는 동아리도 만들어서 전시도 몇번...현재 개인전까지...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사랑방클럽" 축제에도 참석하게 되고 "봉사"라는 나에게 접해보지못했던 너무도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되었다.

봉사중에 만났던 중원청소년수련관 우리꼬마친구들, 올해 만났던 여러나라에서 오신 림슈네, 나영, 서단, 요꼬 등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보다 조금먼저 그림에 입문했던 내가 그들과 같이 즐겁게 같이 그림도 그리고 웃고, 식사도, 대화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다문화에 대한 나의편견도 잘못되었다는 것 깨닫는 소중한 ,보람된 시간이었다.

다문화예술 아카데미에 같이 했던 팀장 박봉덕 선생님, 이종성 선생님, 해옥, 윤아, 인숙, 유정휘선생님, 구형모 선생님, 모든이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랑방클럽에게도 감사한다.

## 다문화 예술 아카데미 수업을 마치며

장운아 (사랑방문화클럽, 하늘빛아뜰리에 : 미술 프로그램)



그림을 시작한지도 7년째가 되었다. 그림이 좋아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친구 인숙씨 소개로 그림을 배우게 되었다. 붓에 물감을 찍어 수채화 화지에 공간이 메꾸어 질 때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점심을 거르기도 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쉽게만 느꼈던 그림이 어렵게 느껴져 붓잡기가 두렵기도 한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림은 나에게 소중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집안에서는 멋진 화가 아내, 멋진 화가 엄마로 되어 있고, 나보다 더 행복해 하는 가족들 박수를 받으며 아름다운 색채와 멋진 풍경을 사랑하는 주부가 되었다. 그림을 통해 집중력도 좋아 지고 인내심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근성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자치센터에서 마을축제 전시회에 참여하고, 하늘빛아뜰리에 클럽을 만들어 사랑방 클럽에 가입하여 전시회에 참여하며, 청소년 수련관에서 특수아동을 지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몇 번보고 선생님 하고 따르며 손을 잡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정 많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많은 정을 주고 싶었다.

올해는 더욱 뜻 있는 해 이다. 박봉덕 팀장님이 이끄는 다문화 예술아카데미에서 다문화엄마들 수채화 강사로 매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업을 지도했다. 토요일 가족과 여행도 뒤로하고 수업에 참여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언니 선생님하고 따르던 서단, 포도 바구니 그리며 행복해하던 림수네, 선생님이 포근해서 좋았던 나영, 아기를 안고 태국 왕궁을 열심히 그리던 판야, 그 외 모두들 기쁨과 보람된 시간이었다.

한 여름부터 박봉덕 팀장님의 땀방울과 여러 선생님들 노고에 힘입어 사랑방클럽문화축제에 선생님과 제자들 그림이 함께 전시되는 기쁨의 시간을 갖았다.

화이팅 ! ^^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열심히 꿈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한 뼘 더 커진 내 마음을 들여다 본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에 감사하며 다함께 손잡고 내년에 또 만나길 기도해 본다.



## 무제

**이 인 숙** (사랑방문화클럽, 하늘빛아뜰리에 : 미술 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가정의 주부 알렉산드라를 만나게 된 계기는 다문화예술 다사랑 모임에서 재능봉사를 하게 되면서였어요.

스위스에서 딸이 나와서 첫 수업은 못나가고 알렉산드라와 두 번째 수업에서 어색하고 낯설게 첫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수채화에 소질이 없는 것 같으면서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제가 아는 수채화 동아리 동생과 많이 닮아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수업에서 알렉산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장미를 예쁘게 채색하면서 지난주보다 잘된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어요 네 번째 수업에는 과일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해바라기를 정성껏 그리면서 작품을 내도 되겠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흐뭇해졌답니다.

이렇게 하루 하루 만나가면서 이야기도 하다보니 가족들 이야기와 친정애기도 듣게 되었는데 여섯 살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학생 봉사자에게 맡기고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우즈베키스탄의 친정동네는 공원이 아주 예쁘다며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알렉산드라는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언니는 블라지보스트크에서 예쁜 딸 둘을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오빠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가족이야기를 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요즘 딸의 출산과 남편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손주 돌보라 청주로 이사 준비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봉사시간을 맞추느라 동문서주하였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친구가 재산이라는데 함께 시작한 각별한 친구 윤아도 있고 다사랑 모임 분들과도 더 돈독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드라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에 기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 마음이 예쁜 그녀들과...

**황해옥** (사랑방문화클럽, 하늘빛아뜰리에 : 미술클럽)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마음이예쁜 동생같은 그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문화라지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마음이 예쁜 그녀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거웠고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함께 보냈고 박봉덕선생님의 탄천전과 우리들의 에코아트전도 함께 축하를 해주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읽어주는 좋은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만남이 즐겁고 아름다워야 추억이 될 수 있고 다시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 보내고 수료식을 끝낸지금 그녀들의 마음속에도 추억이 되고 다시 기다려지는 만남이 될수있지 않았을까 기대해봅니다. 저 또한 함께했던 마

음이 예쁜 그녀들에게 꿈과 사랑을 줄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녀들과의 짧았던 만남은 아쉬웠지만 저에게 새로운 만남은 멋진 선물로 2012년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자선냄비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나눔과 봉사로 넉넉한 마음과 행복한 연말을 보내겠지요. 나눔과 봉사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다문화예술아카데미라는 이름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넉넉함과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바쁜시간 나누어 다문화예술아카데미를 이끌어주신 박봉덕선생님과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주민 지원단체 참여자

### 다문화 예술아카데미를 돌아보며



정 천 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

#### 1.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활동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다문화가족과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20여명의 문화예술 지도교사들의 공헌활동으로 노래부르기, 미술 수채화그리기, 한지 공예, 리본공예, 풍선아트 등을 체험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의 결과로 사랑방문화축제 기간 중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내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 전시회,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사진전시회를 가졌고, 한지공예와 리본공예 작품도 사랑방문화클럽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노래부르기에서 배운 합창곡을 오페라하우스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다문화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하여 '사랑으로'와 '몽게 구름'의 합창공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가족건강성을 높여 나갈 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은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비예산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따른 각국의 전통문화예술활동 지원, 다문화가족 문화학습탐방, 다문화가족 청소년캠프, 민속박물관 체험활동, 지역사회 축제

참가 등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지역사회 문화탐방활동입니다.

다문화전통문화활동 지원은 한국무용단과 연계한 베트남전통무용단과 몽골전통무용단의 지역공헌활동입니다. 3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대상 경기여성의 날 문화예술경연대회에 성남시 대표단으로 한국무용단과 베트남전통무용단이 아리랑을 주제로 하모니를 이룬 무용을 선보여 입상을 하였습니다. 수원지역 다문화축제 공연, 행전안전부 다문화행사, 경기도 다문화 한마당, 아리랑방송 한-아세안 다문화 한마당 축제 등에 참가, 결승에 진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 상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방 국악한마당축제에 베트남전통무용단과 몽골전통무용단이 함께 참여하여 합동 무대에서 다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통합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지역축제인 산성동 다문화 한마당축제, 새마을문고 50주년행사, 음악이 흐르는 희망대공원축제 등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다문화청소년 1박 2일 캠프는 태안청포리조트에서 대학생봉사단과 함께 50명의 초등학교청소년들이 팀 활동, 바닷물 놀이, 물고기잡이 독살체험, 조개잡이 진흙체험, 레크리에이션, 조별토론 및 발표 등으로 태안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호연 지기를 기르고 협동심을 배양한 문화체험활동입니다. 서울 한옥마을 민화조끼만들기 체험은 가회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전통문화체험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전시 작품을 이해하며, 연꽃민화인 전통문양을 직접 채색을 통한 민화그리기 문화체험활동입니다.

지역상가활성화로 진행된 성남수정남로 작은거리축제는 짬뽕로 호랑이만들기, 풍물놀이패와 함께 상가를 돌며 풍요를 기원하기, 고구마 감자 구워먹기, 음악공연, 댄스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다문화가족이 함께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하는 지역축제입니다. '성남일화천마축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초청 합창제 및 열린음악회'는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전문성 악가인 루치카 성악앙상블의 외국곡과 국내곡 공연, 다문화전통공연, 어린이합창단과 다문화어머니합창단, 축구단이 연합한 연합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사랑으로' '희망의 속삭임'을 공연하여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관객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으로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평화방송 '앙미경의 우리가 무지개처럼' 초대석에 다문화가족이 출연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의 지역문화예술활동인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 3. 다문화가족봉사단 활동

다문화가족봉사단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자원봉사단과 학생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입니다.

경찰대학 폴리리스봉사단은 다문화가족 80여명과 봉사단 40명이 함께한 서울대공원나들이 탐방학습활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봉사단원이 팀을 이루어 서로 도와가며 탐방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다문화청소년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한 형, 언니, 누나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대학생봉사단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동안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도우며, 중·고자원봉사단의 스태프역할과 청소년캠프 지도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파트너기관으로서 봉사처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대진고 나눔이다문화봉사단은 지도교사 2명과 21명의 학생봉사단으로 2010년부터 매월 2회,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서현고 다알음다문화봉사단은 1, 2학년 25명이 올해 처음 참가한 봉사단입니다. 성북중 다사랑가족봉사단과 분당파랑새봉사단은 학생과 학모들로 구성되어 3년째 지속적인 다문화 청소년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문화청소년들과 멘토결연을 맺고 학습지원활동, 문화예술활동,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울림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활동에 다문화가족봉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문화의 차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양육과 교육 정보의 미흡 등에 가족봉사단 학모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양육과 교육의 정보를 제공하며, 나눔 바자회 등을 통해 가정에서 필요한 학용품, 의류, 서적, 장난감, 체육놀이기구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 4. 사랑방클럽 축제

사랑방클럽 축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문화예술동아리 및 단체가 참가하여 구성된 문화클럽으로 10월 8일에서 14일까지 1주일간 성남문화재단 후원 문화예술단체의 축제입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는 문화체험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며, 공연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문화예술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몽골전통무용단과 한국무용단의 합동공연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워크샵은 성남아트센터 춤 광장에서 부천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몽골 의상전시, 몽골 문화용품 및 놀이체험활동, 문화나눔 장터로 한지공예, 리본공예, 비누공예, 풍선공예 전시물 및 체험활동, 다문화예술아카데미 활동사진전시, 각국 문화 역사 소개와 아트 마켓으로 전통의 패턴 디자인 목걸이, 악세사리, 세계여행 사진전, 타로 다락방, 캐릭터 핸드폰줄만들기, 다문화음식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전통공연으로 중국, 베트남, 몽골, 다문화어머니합창단의 공연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선을 보였습니다.

다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활동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사각지대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문화 적응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공존의 사회, 나눔과 배려의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문화네트워크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가족자원봉사단이 문화적 역량을 증진해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이주민의 일상생활의 적응을 위한 자녀 양육과 돌봄을 가족봉사단이 함께 하고, 올바른 자녀의 교육 정보를 학모간에 서로 공유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일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 터전을 마련하여, 청소년시기에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성장과 배움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문화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문화예술 지도교사와 가족봉사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한 다문화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원봉사 참여자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 봉사단

#### 이석훈

오늘은 봉사를 하는 날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한다는 말에 기대가 되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아침에 학원이 있어 갔다가 집으로 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어제 조사를 해 보니 버스를 타고 적어도 50분



이 걸리니, 조금만 늦어도 지각이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옷을 입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도 내내 마음이 울렁거렸다. 서현역을 벗어나서 버스를 타본 적은 없었기에, 불안했지만 관찮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야탑역에서 버스를 갈아타는데 김가영을 만났다. 반가웠다. 최소한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다는 증거이기도 했고, 가는 길이 꽤 먼데 심심하지 않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는 길에 김가영이랑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 나는 처음이라 그곳 지리를 잘 모르지만, 김가영은 잘 알고 있어서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다. 모란 시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불안해하긴 했지만, 결국엔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도착을 했다.

가 보니 먼저 후배 친구들이 도착해 있었다. 일단 지각을 한 선배로서 미안함을 느꼈다. 건물이 좀 복잡해 애를 먹었지만, 알고 보니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위로 올라가서 인원점검을 하는데 더 늦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시 기다렸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려 하는데, 우리 말고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보다 많았다. 봉사자가 옆에 없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굳이 봉사자가 없어도 될 만큼 아주 어린이들은 아니라서 뭘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던 중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풍선아트를 할 아이들을 모으라는 말에 나가서 풍

선아트를 했다. 기다란 풍선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난 무엇보다 쥐 모양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내가 어릴 때 풍선아트 중에서 쥐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들고 아껴했기에,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꽃 모양이나 칼 모양도 있었지만, 욕심을 내서 만들기에 도전을 해 보았다. 어렸을 때 해 보았을 때는 어려웠는데-아마 터지는 게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다-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풍선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쉽게만 보였다. 중간중간 터질까봐 무서워서 만들지 못하고 버린 풍선들이 더 많았지만 결국엔 분홍색 풍선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나 혼자 좋아서 일단은 기뻐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던 참이라 줄 아이들이 별로 없어 난감했다. 그러던 중에 풍선을 가지고 있지 않던 친구 하나를 발견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쥐를 안겨주었다.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 기뻐다.

직접 아이들과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 그 동안 내가 했던 봉사활동은 청소가 대부분이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실질적인 체험을 기대를 했지만 그보다는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많았었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 체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다문화에 편견이 없다는 것도 어쩌면 나만의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반성도 해 본다. 벌써 외모가 다르다는 생각에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나오는 것 같아 씁쓸했다. 다양한 사람과 공존해야 하는 세계화 시대에 편견은 정말 뒤떨어진 생각이다. 정말로 반성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동안 없었다. 아니면 내가 앞서서 경험하려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 후자라고 생각을 한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도 경기도민의 결혼 인구 중 10분의 1이 다문화가정이고, 다문화 청소년 야구단이 만들어졌다는 기사도 보았다. 내가 그 동안 노력을 안 한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루빨리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봉사를 하는 중 모든 사람들이 다들 착해 보였다. 실제로도 그랬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은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르겠다. 풍선을 가지고 같이 장난을 치는 친구들을 보면, 누가 낯설고 다른 사람인가. 모두 같이 즐겁게 지낼 때 그러한 것은 없었다. 좀 더 저학년인 학생들도 와서 봉사를 해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사람이다. 다양한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는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러 사회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허물 없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 보았다.

## 서현고등학교 다알음 봉사단

김가영

오늘은 중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 첫 봉사였다. 첫 봉사여서 두근두근 대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려갔다. 이곳저곳 연락하면서 힘들게 구한 봉사 자리라서 더욱 기대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부터 앞섰다.

중원 청소년 수련관 5층에 올라가니 벌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몇 명 와있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수업을 듣는 동안 그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돌봐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

오늘 내가 맡은 아이는 엄마가 중국인인 다섯 살 임효원이라는 아이였다. 머리도 작고 웃도 예쁘게 입은 귀여운 여자애였다.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는 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듯 했다. 똑같이 찰흙을 빚는데 오빠는 기린을 똑딱 만들어내고 효원이는 찰흙을 덕지덕지 붙인 괴상한 물체를 만들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효원이는 오빠를 매우 좋아하는지 오빠를 따라 다니려고 했다. 오빠가 공부하러 갈 때는 같이 따라가서 옆에서 나랑 책을 읽었다. 영어책도 읽어주고 한글책도 읽어주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자주 돌봐주지 못해서 한국 아이들보다도 더 산만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효원이를 따라다니느라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또한 마음을 잘 열

지 않는다. 효원이도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고 나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책도 읽어주고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 어찌나 말이 많은지 종달새 같았다. 조금 친해진 듯해 기분도 참 좋았다.

봉사가 끝나고 그 봉사 측 관계자 분과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적고 봉사자가 너무 많아 그 쪽도 혼란스러워했다. 게다가 연속적으로 와야 하는데 격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힘들다고 하셨다. 봉사자가 계속 바뀌면 다문화 엄마들도 단합이 안 되고 아이들도 정을 붙이지 못한다고 하셨다. 관계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주는 것을 엄마들이 좋아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방학 동안은 주말마다 지속적인 학습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관계자 분께서는 우리처럼 학생들이 직접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가 정말 기특하다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빴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싹 사라졌다. 뿌듯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좋은 일이라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할 일에 고마워 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힘들면 어때. 아무래도 좋았다.

다음에 봉사를 갈 때는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 대진고 나눔이 봉사단

한예빈

(분당 대진고등학교 2학년)

저는 봉사 동아리인 '나눔이'를 2학년 때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남 중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다문화예술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활동하는 봉사활동 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1년 전 부터 하던 봉사단원이 아닌 저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나를 많이 경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와 많이 다르겠지?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활동 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할까? 말이 잘 통할까? 등 여러 고민을 했었지만 활동하기 전 여러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은 밝고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한글공부도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었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여 사진도 찍으며 추억도 많이 쌓게 되었고 다문화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다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문화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여 다문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진로를 생각 하고 있던 저에게 이 활동들이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봉사활동을 하기 전 고민했던 내가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문화 아이들과 우리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거나 엄청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매일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지만 내 동생같이 생각되어 봉사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 다문화관련 프로그램들을 늘려 여러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친밀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경기지역 컨소시엄사업 '세 친구 어깨동무'의 성남지역 추진사업입니다.